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315>

JCCT 2023-7-38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조절변수로서의 지속가능지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Behavioral Intention of Eco-tourists through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ed on Sustainable Intelligence as Moderate Variable

고채환*

Chai-hwan Ko*

요약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과 조절변수인 지속가능지능을 바탕으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2부를 실증 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의 연령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족 중심의 생태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획행동의 하위변수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가치의 하위변수인 인식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가능지능은 독립변수인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종속변수인 행동의도 간에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계획행동이론, 지각된 가치, 지속가능지능, 행동의도, 생태관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eco-tourists'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explor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ustainable Intelligence as moderating variable. To do so, the survey was conducted on eco-tourists from Dongbaek-Dongsan wetland, Jeju-do between March. 12th and 30th, 2023. As a result, eco-tourists aged 50 years old and over, and from Jeju-do with their family members have more possibilities to visit Dongbaek-Dongsan wetland. Also, this study analyz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subjective norm, epistemic value, emotional value and attitude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Further, sustainable intelligence as the moderating variable showed its moderation effect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attitude and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as dependent variable.

Key words :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Perceived Value, Sustainable Intelligence, Behavioral Intention, Ecotourism

1. 서론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과 같은 이슈들은 환경문제가 전 세계인이 직면한 공동의 해결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영향은 관광산업에

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대중·대량 관광에 기반한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자연 생태계 훼손, 대량 쓰레기 발생,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여러 부정적 결과들을 야기하였다. 그 후 이러한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관광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생태관광도 대안관광의 일환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 이슈에

*정회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지원실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6월 19일, 수정완료일: 2023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0일

Received: June 19, 2023 / Revised: July 5, 2023
Accepted: July 10, 2023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1]. 더 나아가 2019년 11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하기 시작했던 COVID-19로 인해 관광의 양태는 기존의 대중관광에서 다양한 방식의 대안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청정 자연과 휴양을 바탕으로 한 관광 상품 기획과 수익증대의 방안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모색을 주요 정책적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3].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방문은 관광지 과밀화,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식생 피해, 수용 한도 이상의 오염 발생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생태관광객의 책임 있는 관광 행동을 발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태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설명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지속가능지능(Sustainable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지능이 높은 관광객은 관광 대상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의 행동이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핵심 요인임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다[5-6].

아울러, 관광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통한 방문객 규모의 확대와 관광지에 대한 주변 권유 및 추천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케팅 및 홍보 효과 창출이 관광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결국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생태관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제주 동백동산 습지는 2010년 11월 12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부터 연속 4회 환경부의 생태관광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7-8]. 또한 2011년 3월 14일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보존 습지로 등록되었다[9]. 그 이외에도 동백동산 습지가 위치한 조천읍 선흘 1리가 람사르 마을로 시범 지정되었으며 2018년 개최된 제13회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준받았다[7].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는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습지 관리와 함께 탐방 안내, 해설사 동행, 지역주민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태관광으로 창출되는 수익의 70%가 지역으로 환원되고 그 수익의 10%는 환경 보전기금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7].

이처럼 동백동산 습지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생태관광 모델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습지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 규모와 특성, 동백동산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이나 만족 수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백동산 습지 생태계와 탐방로 관리 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생태관광지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관광학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생태관광객 본연의 지속가능지능이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검증된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적용하였다. 계획행동에 지각된 가치를 추가변수로 설정하고 지속가능지능을 조절변수로 구성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대안관광의 한 유형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개념이다. 생태관광은 관광지의 사회·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와 환경적 측면의 기여까지 함께 고려하는 점이 기존의 대중·대량 관광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10].

생태관광의 역사와 관련하여 Wallace(1992)는 1965년 Hetzer가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관광으로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언급한 것을 생태관광의 시작이라 평가하였다. 1983년 Ceballos-Lascurain은 미국 홍학(America Flamingo) 번식지인 유카탄(Yucatan) 북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0]. 그 후 국제관광 기구들 중 하나인 ASTA가 1990년 6월 개최한 관광 환경 회의에서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경험하는 여행, 즉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생태관광이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태관광의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습지보전법”에서 공식 명칭으로 처음 인용되었다. 그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자연과의 조화, 균형,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는 대안관광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다[11].

현재 생태관광의 개념은 관광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며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를 의미한다. 자연 자원, 동식물, 기후 등 해당 관광지의 모든 환경적 요소들이 생태관광 자원에 해당할 수 있다[1-12]. 습지는 자연생태계 동·식물의 안식처로서 습지보존지역, 람사르협약 등 국내·외로 그 보존체계를 갖추어 있지만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습지 생태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13]. 이에, 생태관광지로서의 습지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습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기존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의 개념을 확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계획행동과 함께 추가 변수의 설정을 통해 행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수정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의 개념을 확대한 이론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 행동의 선행적 요인에 해당하는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도,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계획행동이론은 이를 확대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를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변수로서 구성한 이론이다[14]. 계획행동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관광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의도와 행동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14].

계획행동이론이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 적용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선행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만으로는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수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행동이론의 이론적 틀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모델이 제시되었다[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선행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규범 신념, 행동 신념, 전반적 이미지, 만족도, 열정, 과거 행동, 유용성, 쾌락성, 도덕적 책무, 지각된 위험, 애착도, 사회계층, 구조적 관광 제약요인, 사전지식, 즐거움, 도덕적 책무, 플로우(flow) 등 다양한 추가 변수들을 적용하여 행동의도와 그에 뒤따르는 실제행동에 대한 설명력 및 예측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3.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Zeithaml(1988)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 투자에 따른 소득 또는 이익, 적정 수준의 가치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제품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지각된 가치로 정의하였다. 또한 Bolton

& Drew(1991)는 지각된 가치를 소비자가 지불한 투자 또는 비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16].

관광 분야에서 연구된 지각된 가치는 재정적, 사회적, 인식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 등 다양한 하위 속성들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7].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11].

4. 지속가능지능

‘지속가능지능(Sustainable intelligence)’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인식 및 이해와 함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내적 인식 또는 감정적 능력에 주된 중점을 두는 IQ나 EQ와 같은 지능들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지능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자의식, 자발성, 사회성,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광범위한 정신적 특징을 분석하는 개념이다[18].

관광 분야에서 지속가능지능 개념은 2015년 Lopez-Sanchez와 Pulido-Fernandez가 처음 논의 하였는데 지속가능지능은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광객 본연의 지식, 태도, 인식, 경험 등을 적용하는 능력이며 지속가능지능이 높은 관광객일수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향상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들이 더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지도록 그들의 지식, 태도, 인식, 경험, 행동이 발현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9]. 결과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생태관광지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생태관광객의 부정적 행동을 제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현하는데 지속가능지능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행동의도

행동의도란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형성된 태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신념

이라 정의할 수 있다[20-21]. 행동의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연구되었다[22-23]. 계획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도는 선행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세 가지 선행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실현하는데 발현되는 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행동의도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22].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행동의도는 일반적으로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 구매 의도 등을 하위 요인들로 구성하는 개념이다. 관광 분야에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행동의도에 대하여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는 재방문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관광지를 추천하는 의도를 구성 변수로 연구하였다[11-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연구한 관광 분야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다시 방문할 의지인 재방문 의도, 주변에 동백동산 습지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추천 의도를 구성 요인으로 하여 행동의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첫째, 계획행동이론의 구성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지각된 가치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된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속가능지능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연계한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은 계획행동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관광분야 연구와 [15-25-26],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생태관광 분야 연구[11-16-20]를 통해 변수들과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설계하였다.

관광 분야 연구에서의 지속가능지능은 지속가능한 관광에서 시장세분화를 위해 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 개념을 도입한 연구[5]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연계한 관광객의 능력, 행동의도, 친환경 행동, 사회적 책임, 환경적 자기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8-19-27-28]와 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행동과 연계한 매개변수로서 연구[19]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와 연계한 조절변수로서 지속가능지능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에서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 구성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생태관광객 개인의 역량이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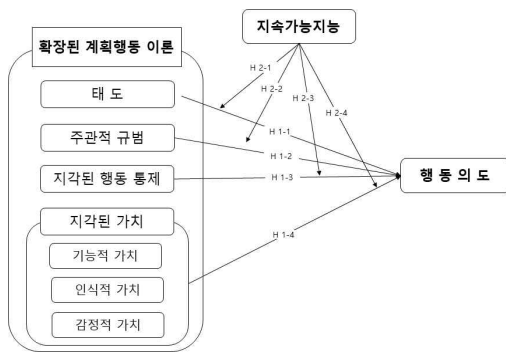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관광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에게 발현될 행동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14-15-25-26 29-30-31-32-3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계획행동에 다양한 추가 변수들을 적용하여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선행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다양한 영향 관계를 입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가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태관광 분야에서 지각된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생태관광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다양한 하위 속성들로 구성되어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11-16-20-34-35-36-37-38].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의 하위 변수로 적용된 기능적, 인식적, 감정적 가치를 바탕으로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지속가능지능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객의 행동과 능력,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관광지역을 보존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행동의도, 관광자원 보존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의도, 생태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고자 연구되었다[5-18-19-27-28]. 이와 같이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목적지 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관광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지능은 특정 행동을 결정하는 믿음, 신념 등에 대한 규범과 지식이 반영됨을 고려할 때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주요 역량이라 할 수 있다[19-39].

본 연구는 지속가능지능이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지속가능지능이 조절변수로서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 정도에 따라 그들의 계획행동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생한다면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지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검증은 위하여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가설 요약
 Table 1. Summary of hypothesis

가설	가설 내용
H 1	생태관광객의 확장된 계획행동은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생태관광객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생태관광객의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1	생태관광객의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2	생태관광객의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4-3	생태관광객의 감정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확장된 계획 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H 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획행동 12개 항목, 지각된 가치 12개 항목, 지속가능지능 5개 항목, 행동의도 3개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계획행동은 Lee와 Han[22], Yoon[2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 본인의 방문에 대한 평가, 습지를 방문한 생

태관광객의 주변인들이 그 방문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생태관광객이 습지를 방문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의사결정 형성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계획행동의 하위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각각 ‘습지 방문으로 형성되는 생태관광객 개인의 신념과 평가’, ‘습지 방문과 관련하여 주변인들의 평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습지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나 자원에 대한 생태관광객 개인의 지각’이라 정의하였고 변수별로 4문항, 총 12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지각된 가치는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16-40-41].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습지 방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판단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 구성 요인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관광 분야에서 논의된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를 하위 구성 변수로 적용하였다. 각 하위 구성 변수에 대한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설문 항목을 본 연구목적과 연계하여 각 하위 구성 변수별로 4개의 항목,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20-41]. 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 인식 및 이해로부터 형성된 개인의 고유 역량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개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지속가능지능에 대한 측정항목은 Kim[19]의 설문 항목을 본 연구와 연계하여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행동의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써 추천 의도, 재구매 의도, 재방문 의도 등을 구성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22-42-4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행동의도를 동백동산 습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여 ‘습지를 재방문할 의도와 추천할 의도’로 정의하고 총 3개의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계획행동 및 지각된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지능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 조사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은 2명의 조사자와 연구자가 설문 기간 동안 동백동산 습지센터 앞에서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탐방을 마친 생태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사자가 각 항목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법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직접 설문 항목을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임의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오류가 있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12부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7.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을 측정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적용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점수분포를 도출하였고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독립변수들인 계획행동과 지각된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지속가능지능이 조절변수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31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122명(39.1%), 여성 190명(60.9%)이었다. 연령은 19세 이하 17명(5.4%), 20~29세 21명(6.7%), 30~39세 30명(9.6%), 40~49세 53명(17.0%), 50~59세 100명(32.1%), 60세 이상 91명(29.2%)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75명(24.0%), 기혼 229명(73.4%), 기타

8명(2.6%)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인천/경기 72명 (23.1%), 대전/세종/충남/충북 28명(9.0%), 광주/전남/전북 21명(6.7%), 부산/울산/경남 27명(8.7%), 대구/경북 15명(4.8%), 제주 149명(47.8%)이었다. 직업은 전문직 87명(27.9%), 생산직 3명(1.0%), 판매/서비스직 12명(3.8%), 사무직 48명(15.4%), 자영업 35명(11.2%), 학생 30명(9.6%), 기타 97명(31.1%)이었다. 학력은 초졸 이하 13명(4.2%), 중졸 15명(4.8%), 고졸 62명(19.9%), 대졸 134명(42.9%), 대졸이상 88명(28.2%)이었다. 동백동산 습지 방문 횟수는 1회 184명(59.0%), 2회 35명(11.2%), 3회 12명(3.8%), 4회 5명(1.6%), 5회 이상 76명(24.4%)이었다. 동백동산습지 동행인은 혼자 23명(7.4%), 가족/친척 193명(61.9%), 친구 55명(17.6%), 직장동료 23명(7.4%), 기타 18명(5.8%)이었다. 동백동산 습지 정보 수집처는 TV/신문/잡지 19명(6.1%), 인터넷 103명(33.0%), 주위 사람 권유 136명(43.6%), 기타 54명(17.3%)이었다. 동백동산 습지를 생태관광지로 인지하는지 여부는 전혀 모름 81명(26.0%), 들은 적 있음 62명(19.9%), 조금 알고 있음 98명(31.4%), 잘 알고 있음 71명(22.8%)이었다. 과거 생태관광 경험은 있다 224명(71.8%), 없다 88명(28.2%)이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분석

Table 2.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22	39.1
	여성	190	60.9
연령	19세 이하	19	5.4
	20~29세	21	6.7
	30~39세	30	9.6
	40~49세	53	17.0
	50~59세	100	32.1
	60세 이상	91	29.2
결혼 여부	미혼	75	24.0
	기혼	229	73.4
	기타	8	2.6
거주지	서울/인천/경기	72	23.1
	대전/세종/충남/충북	28	9.0
	광주/전남/전북	21	6.7
	부산/울산/경남	27	8.7
	대구/경북	15	4.8
	제주	149	47.8
직업	전문직	87	27.9
	생산직	3	1.0
	판매/서비스직	12	3.8
	사무직	48	15.4

특성	구분	n	%
	자영업	35	11.2
	학생	30	9.6
	기타	97	31.1
학력	초졸 이하	13	4.2
	중졸	15	4.8
	고졸	62	19.9
	대졸	134	42.9
	대졸 이상	88	28.2
방문 횟수	1회	184	59.0
	2회	35	11.2
	3회	12	3.8
	4회	5	1.6
	5회 이상	76	24.4
동행인	혼자	23	7.4
	가족/친척	193	61.9
	친구	55	17.6
	직장동료	23	7.4
	기타	18	5.8
정보 수집처	TV/신문/잡지	19	6.1
	인터넷	103	33.0
	주위 사람 권유	136	43.6
	기타	54	17.3
생태 관광지 인지 여부	전혀 모름	81	26.0
	들어본 적 있음	62	19.9
	조금 알고 있음	98	31.4
	잘 알고 있음	71	22.8
과거 생태관광 경험	있다	224	71.8
	없다	88	28.2
합계		312	100.0

2.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예비분석을 실행하였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가 .50 이상, 개념 신뢰도가 .70 이상, 분산추출지수가 .50 이상인지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판단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측정항목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2.863(\chi^2=1248.170, df=436)$, GFI=.806, NFI=.874, TLI=.943, CFI=.914, RMSEA=.077, RMR=.032 으로 GFI와 NFI를 제외한 대부분 권장수준 내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44]. 요인별 집중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의 표준화계수는 .50 이상 이었으며, 개념신뢰도는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0 이상이었고,

내적일관성을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0 이상이였다.

계획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는 .608~.939로 .50 이상이였으며, 개념 신뢰도는 .871~.976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33~.910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59~.948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치의 하위개념인 기능적 가치, 인식적 가치, 감정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는 .788~.923로 .50 이상이였으며, 개념 신뢰도는 .871~.973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30~.899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52~.928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지능을 측정된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는 .609~.839로 .50 이상이였으며, 개념 신뢰도는 .913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680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864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를 측정된 문항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준화 계수는 .846 ~.952로 .50 이상이였으며, 개념신뢰도는 .968으로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910로 .50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만족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939로 .7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1) 구성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 변수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들의 점수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들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0 이상 높은 결과 값이 나타났으며 변수간의 정적 상관($r=.429\sim.856$)이 있었다. 특히 지각된 가치의 하위영역인 기능적 가치와 인식적 가치 간의 상관계수는 .856으로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 측정항목의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Analysis on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Item

요인	문항	집중타당성			크론바하 알파계수	
		표준화계수	CR	AVE		
태도	1.동백동산습지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870	.976	.910	.948	
	2.동백동산습지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913				
	3.동백동산습지 방문은 바람직한 행동이다	.939				
	4.동백동산습지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899				
주관적 규범	5.내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을 찬성해 줄 것이다	.814	.957	.848	.915	
	6.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841				
	7.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901				
	8.내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은 동백동산 습지 방문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이다.	.874				
지각된 행동 통제	9.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동백동산 습지에 방문할 수 있다.	.872	.871	.633	.859	
	10.동백동산 습지는 쉽게 방문할 자원이 있다.	.884				
	11.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608				
	12.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746				
지각 된 가치	기능적 가치	1.동백동산 습지는 기분을 좋게 한다.	.903	.973	.899	.928
		2.동백동산 습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923			
		3.동백동산 습지는 일상의 탈출을 가져다 준다.	.828			
		4.동백동산 습지는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863			
	인식적 가치	5.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유용하다	.863	.947	.816	.896
		6.동백동산 습지는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836			
		7.동백동산 습지는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872			
		8.동백동산 습지는 생태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다.	.757			
	감정적 가치	9.나는 호기심으로 동백동산 습지 방문을 선택했다	.642	.871	.630	.852
		10.나는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동백동산 습지를 선택했다	.788			
		11.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852			
		12.동백동산 습지는 나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815			
지속가능지능	1.나는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86	.913	.680	.864	
	2.나는 동백동산 습지 관광을 하는 동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한다.	.825				
	3.나는 동백동산 습지가 지속가능한 관광지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839				
	4.나는 동백동산 습지의 책임 있는 관광사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40				
	5.나는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추가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609				
행동의도	1.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846	.968	.910	.939	
	2.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952				
	3.나는 동백동산 습지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다.	.950				
$\chi^2/df=2.863(\chi^2=1248.170, df=436), CFI=.806, NFI=.874, TLI=.943, CFI=.914, RMSEA=.077, RMR=.032$						

표 4.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행렬

Table 4. Correlation of construct variable

(n=312)

구성개념	M(S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태도	4.46(.63)	1							
② 주관적 규범	4.38(.63)	.808***	1						
③ 지각된 행동통제	4.10(.83)	.502***	.522***	1					
④ 기능적 가치	4.54(.56)	.689***	.621***	.445***	1				
⑤ 인식적 가치	4.41(.63)	.693***	.644***	.487***	.856***	1			
⑥ 감정적 가치	4.12(.77)	.482***	.443***	.429***	.632***	.688***	1		
⑦ 지속가능지능	4.30(.64)	.580***	.574***	.453***	.647***	.741***	.681***	1	
⑧ 행동의도	4.41(.68)	.699***	.700***	.489***	.708***	.745***	.596***	.643***	1

*:p<.05, **: p<.01, ***: p<.001

2) 가설검증을 위한 구성개념 간 영향 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계획행동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지각된 가치의 기능적, 인식적, 감정적 가치가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지속가능지능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1) 가설 1의 검증

지각된 가치를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인식적 가치($\beta=.266, p=0.000$)와 주관적 규범($\beta=.255, p=0.000$), 감정적 가치($\beta=.139, p=0.003$), 태도($\beta=.129, p=0.040$) 순으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beta=.043, p=0.295$)와 기능적 가치($\beta=.120, p=0.076$)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적 가치는 인식적 가치와의 높은 상관($r=.856, p=.000$)으로 인해 두 변수가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수 중 상대적으로 행동의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확장된 계획행동 변인들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of Extended Planned Behavior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n=312)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상수)	-.034	.194		-.174	.862
태도	.139	.067	.129	2.065*	.040
주관적 규범	.287	.063	.266	4.542***	.000
지각된 행동 통제	.035	.033	.043	1.049	.295
기능적 가치	.145	.081	.120	1.783	.076
인식적 가치	.287	.078	.266	3.678***	.000
감정적 가치	.122	.041	.139	2.975**	.003
F=100.095, p=.000, R ² =.663, Adj-R ² =.657					

*: p<.05, **: p<.01, ***: p<.001

(2) 가설 2의 검증

확장된 계획행동의 변수들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지속가능지능을 중심화한 뒤 확장된 계획행동 변수들과 지속가능지능 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확장된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6.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태도	.699***	.491***	.463***
지속가능지능		.357***	.346***
상호작용			-.082*
Adj-R ²	.487	.570	.574
R ²	.489	.573	.579
ΔR^2	-	.085	.005
F	296.06***	207.52***	140.94***
F변화량	-	61.347***	3.896*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영향($\beta=.699$)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48.9%이었다. 2단계에서 태도($\beta=.491$)와 지속가능지능($\beta=.357$)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8.5%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태도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082$)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5%이었다. 즉,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도가 낮더라도 지속가능지능이 높으면 행동의도에 더 큰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7.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Subjective Norm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주관적 규범	.700***	.495***	.456***
지속가능지능		.344***	.344***
상호작용			-.117**
Adj-R ²	.488	.574	.584
R ²	.490	.576	.588
ΔR ²	-	.087	.011
F	297.614***	210.246***	146.443***
F변화량	-	63.181***	8.555**

*: p<.05, **: p<.01, ***: p<.001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700$)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49.0% 이었다. 2단계에서 주관적 규범($\beta = .495$)과 지속가능지능($\beta = .344$)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8.7%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주관적 규범과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117$)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1%이었다. 즉,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관적 규범이 낮더라도 지속가능지능이 높으면 행동의도에 더 큰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489$)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23.9% 이었다. 2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beta = .249$)와 지속가능지능($\beta = .500$)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22.3%이었다. 마지막

표 8.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지각된 행동통제	.489***	.249***	.245***
지속가능지능		.530***	.527***
상호작용			-.025
Adj-R ²	.237	.459	.457
R ²	.239	.462	.463
ΔR ²	-	.223	.001
F	97.335***	132.725***	88.404***
F변화량	-	128.181***	.335

*: p<.05, **: p<.01, ***: p<.001

3단계에서 지각된 행동통제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9. 기능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9.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Functional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능적 가치	.708***	.503***	.470***
지속가능지능		.317***	.311***
상호작용			-.079
Adj-R ²	.500	.557	.561
R ²	.502	.560	.565
ΔR ²	-	.059	.005
F	312.189***	196.897***	133.399***
F변화량	-	41.161***	3.376

*: p<.05, **: p<.01, ***: p<.001

기능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서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708$)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50.2%이었다. 2단계에서 기능적 가치($\beta = .503$)와 지속가능지능($\beta = .317$)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5.9%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기능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기능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10. 인식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10.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Epistemic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식적 가치	.745***	.597***	.574***
지속가능지능		.200***	.193**
상호작용			-.061
Adj-R ²	.554	.571	.573
R ²	.556	.574	.577
ΔR ²	-	.018	.003
F	387.826***	208.005***	139.847***
F변화량	-	13.076***	2.079

*: p<.05, **: p<.01, ***: p<.001

인식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745$)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55.6% 이었다. 2단계에서 인식적 가치($\beta = .597$)와 지속가능지능($\beta = .200$)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8%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인식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인식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1단계에서 감정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 = .596$)을 미쳤으며, 1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5% 이었다. 2단계에서 감정적 가치($\beta = .295$)와 지속가능지능($\beta = .317$)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에서

표 11.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

Table 11.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between Emotional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독립변수	종속변수(행동의도)		
	1단계	2단계	3단계
감정적 가치	.596***	.295***	.294***
지속가능지능		.442***	.436**
상호작용			-.017
Adj-R ²	.353	.456	.455
R ²	.355	.460	.460
ΔR ²	-	.105	.000
F	170.746***	131.451***	87.435***
F변화량	-	59.780***	.137

*: p<.05, **: p<.01, ***: p<.001

추가로 설명되는 비율은 10.5%이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감정적 가치와 지속가능지능의 상호작용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감정적 가치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지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3)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Table 12. Summary of result from verification of hypothesis

가설	가설 내용	채택여부	
H 1-1	생태관광객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1-2	생태관광객의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1-3	생태관광객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41	생태관광객의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부분 채택
H142	생태관광객의 인식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43	생태관광객의 감정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2-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 2-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 2-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1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2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인식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43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에 따라 감정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V. 결 론

동백동산 습지는 고사리삼을 포함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용암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화산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국내·외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지로서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동백동산 습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절변수로서 지속가능지능의 역할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뚜렷한 차별성이 인정된다. 이는 지속가능지능 적용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과 통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인식적 가치, 감정적 가치, 태도 순으로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됐지만 지각된 행동통제와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기능적 가치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써 습지를 방문하는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객 개인의 가용한 자원 및 기회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습지 생태관광객의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습지 방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습지 방문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광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습지 방문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그에 따른 생태관광객의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은 그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있다. 즉,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높다면 습지 방문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주변인들의 평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인식 수준이 낮아도 생태관광지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이 높아도 생태관광객이 습지 방문을 위한 본인의 가용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인식 수준과 지각된 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줄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동백동산 습지 생태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계획행동에 지각된 가치를 추가 변수로 설정하였고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근거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실제 생태관광객에게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백동산 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생태관광객의 주관적 규범, 인식적 가치, 감정적 가치, 태도를 향상시켜 그들의 행동의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을 원칙으로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탐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생태 관리 감독 프로그램과 해설사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실증적인 만족도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룹, 환경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으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습지 생태관광의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신규 생태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생태관광객의 지속가능지능의 향상과 관련하여 동백동산 습지가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 필요성과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습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등 습지가 보유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백동산 습지 브랜딩을 추진하여 동백동산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지각된 가치'를 적용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확장된 계획행동은 다양한 추가변수 적용이 가능한 점과 지속가능지능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음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추가 변수

들을 적용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3월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다른 시기나 계절에 시행되는 설문조사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 차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동백동산 습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제주도내 타 습지들에 적용하기에는 각각의 습지가 보유한 실증적 차이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1] M. S. Jang & K. H. Kim, "Factors Influencing Ecotourists' Return Visits : Focusing on the Upo Wetlands",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30(3), 69-87, 2018. DOI: <http://dx.doi.org/10.26840/JKI.30.3.69>
- [2] Y. H.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Behavioral Intention on Tourism Destination Image, Perceived Value and Satisfaction : Focusing on Visitors to Cherwon-gun, Gangwon-do, Major in Tourism, Leisure & Aviation MBA", Master's thesis, Kyung Hee Cyber Universtiy, Seoul, 2020.
- [3] Jeju Tourism Society, 3rd Service Report on Establishment of Plan for Tourism Promo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2019~2023), 2019.
- [4] L. Su. & S. R. Swanson, "The effect of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on touris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Compared analysis of first-time and repeat tourists". *Tourism Management*, 60, 308-321, 2017. DOI: <https://doi-org-ssl.lib.jejunu.ac.kr/10.1016/j.tourman.2016.12.011>
- [5] Y. López-Sánchez, & J. I. Pulido-Fernández, "In search of the pro-sustainable tourist: A segmentation based on the tourist "sustainable intelligence".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17, 59-71, 2015. DOI:<http://dx.doi.org/10.1016/j.tmp.2015.12.003>
- [6] T. H. Lee & F. H. Jan, "Ecotourism behavior of nature-based tourist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Travel Research*, 57(6), 792-810, 2018. DOI: <https://doi-org-ssl.lib.jejunu.ac.kr/10.1177/0047287517717350>
- [7] Dongbaek-Dongsan wetland center, <http://ramsa.r.co.kr/2023.4.30>.
- [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ttps://www.me.go.kr/home/web/main.do/2023.05.02>.
- [9] H. Choi, "Community Building in Seonheul-1-ri and Substantiality of the Commons", *ECO*, 21, 1-69, 2017.
- [10] J. Kim & D. W. Ko, "A Change in Tourism Environmental Attitudes through Ecotourism Activities : Focusing on Ecotourism Participants in Upo Wetlands",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1), 56-64, 2011.
- [11] S. B. Seon, "A Study on the Eco-Tourism Motivation, Attractiveness, Perceived Value, Behavior Intention", Doctor's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Jeonju, 2011.
- [12] K. H. Hong & J.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for Invigorating National Park as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in Regional Development",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3(2), 103-123, 2021. DOI:<http://dx.doi.org/10.35526/srd.2021.53.2.05>.
- [13] H. S. Lee, "Valuation of Wetland Eco-Tourism Site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The Case of Suncheon Ba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 (11), 19-31. 2017. DOI:<http://dx.doi.org/IJTH R.2017.11.31.11.19>
- [14] Y. H. Jin, S. H. An & Y. Y. Kim, "Analysis of Purchasing Behavior of Food Service Customers Us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Focused on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1), 151-162, 2016.
- [15] H. R., Kim, T. H, Lee & S. M. Yoon, "A Study on Behavioral Intention about Visiting in Theme Park based o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layfulness",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4(2), 5-23, 2010.
- [16] K. H. Hong,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Value for Ecotourism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al Intention -Mt. Naejang, Mt. Moodeung, Mt. Wolchul National Park as a Case",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2021.
- [17] M. S. Choi & M. J. O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Value, Attitude, and Ecotourism Intention of Eco-tourists:Using the VAB(Value-Attitude-Behavior)Model", *Inter*

- 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3(1), 157–171, 2019. DOI:<https://doi.org/10.21298/IJTHR.2019.1.33.1.157>
- [18]J. H. Lee, D. Joo, C. K. Lee, Y. N. Parkt & Y. J. Kwon, “The role of residents’ sustainable intelligence in agricultural heritage site management : Insights from PLS–SEM and Fs/OC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52, 65–74, 2022.DOI:<http://doi.org/0.1016/j.jhtm.2022.06.004>.
- [19]K. H. Kim, “Assessing Eco-tourists’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VIP(Value-Identity-Personal Norm) Model: The Mediating Effect of sustainable Intelligence”, Docto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9.
- [20]H. C.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Value in Eco-Tourism Destination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Doctor’s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4.
- [21]S. H. Na & Y. S. Yeo, “A Study on the Determinations of Visiting Art-Museum and Behavioral Intention of Art-museum Visitor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5(3), 131–137, 2019.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31>.
- [22]D. S. Lee & H. S. Han, “A Study on the Behavior Intention of Festival Visitors b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Perceived Risk”, *Tourism Research*, 41(4), 205–225. 2016.
- [23]J. T. Kim, H. R. Jang, S. H. Cho & Y. H. I.,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in Hotel”, *Chinese Restaurants*, 5(4), 63–70, 2017. DOI:<https://doi.org/10.17703/IJACT.2017.5.4.63>.
- [24]D. H. Kim, “Impacts of Destination Attributes on Perceived Tour Values,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Doctor’s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005.
- [25]S. M. Yoon, “A Study on the Behavioral Adherence of Tourists Pursuing Adventurous Leisure Activity by Using Extension about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ing on the Role of Flow, Attachment and Past Behavior”, Docto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0.
- [26]J. S. Lee & C. K. Lee,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ki Resort Visitors Us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2(4). 1–19, 2010.
- [27]S. H. Yu & C. K. Lee, “The Effects of Sustainable Intelligence on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Focusing on the Sihwa Lake Wetland A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7(3), 19–31, 2023. DOI: <https://doi.org/10.21298/IJTHR.2023.3.37.3.19>
- [28]C. K. Lee, H. Olya, M. S. Ahmad, K. H. Kim & M. J. Oh, “Sustainable intelligence, destination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of visitor : Evidence from an eco-tourism sit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47, 2021, 365–376. DOI: <https://doi.org/10.1016/j.jhtm.2021.04.010>
- [29]J. Y. Ko, Y. J. Choi & E. Y. Yoo, “ The Study of Wine Purchasing Intention based o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ed on Wine Shop and Major Supermarke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5(2), 344–164, 2013.
- [30]C. H. Kang, J. J. Woo & W. J. Hyeong, “Behavior Prediction of Coffee Shop Customers: Using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urism Research*, 39(3), 277–300, 2014.
- [31]J. J.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Food Consumption Value o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urchase Intentions: Michelin Guide Seoul Restaurants Users”, Doctor’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2017.
- [32]J. E. Lee, “Analysis on a Behavioral Intention of Visiting Ecological Experience Facilities through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 Focusing on Visitors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of Korea, Convergence Touris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20.
- [33]S. H. Lee, “The Influence of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Travel Involvement on Overseas Travel Intention in Post-Corona Era : Expanding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5(2), 437–457, 2021. DOI:<http://dx.doi.org/10.18604/tmro.2021.25.2.21>
- [34]S. H. Park, K. G. Lee & G. J. Choi, “The Relationship of Food Festival Quality,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5(2), 1-21, 2020. DOI:<http://dx.doi.org/10.21719/IJTMS.35.2.1>
- [35]M, J, Oh,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ttractiveness, Perceived Valu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of a Cultural Tourism -oriented Traditional Market Palc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Visiting Exper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3), 81-96, 2018. DOI:<http://dx.doi.org/0.21298/IJTHR.2018.03.32.3>
- [36]J. Yoon. & S. G.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Valu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of Marina Yacht Experience Participant: Focused on Geoje Marinabay Yacht Us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3(12). 47-61, 2019. DOI <https://doi.org/10.21298/IJTHR.2019.12.33.12.47>
- [37]Y. L.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Market Food Selection Attributes,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Enhancement*, 8(1), 139-158, 2020. DOI: <https://doi.org/10.35498/kotes.2020.8.1.139>.
- [38]H. K. Jeon,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haracteristics in Toursim Site, Tourists’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Docto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0.
- [39]A. Caputo, O. B. Ayokob, & N. Amoo, “The moderating role of cultur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orientation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9, 10-20, 2018. DOI: <https://doi.org/10.1016/j.jbusres.2018.03.042>.
- [40]Y, G, Kim & J, Y, Chung. “Effects of Service Convenience and Perceived Value on Satisfaction with Eating out in Social Commerce Servic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7(3), 83-102, 2013.
- [41]H. Y. Jung,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Value on the Airline’s Convenience and Customer Loyalty”,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2(3), 155-175, 2019. DOI: <https://org/10.24991/KJHRD.2019.09.22.3.155>
- [42]K. Ryu & S. Jang, “Intention to Experience Local Cuisine in a Travel Destination: the Modified Theory of Reasonable Action”,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0, 507-516, 2016. DOI: <https://doi-org-ssl.lib.jejunu.ac.kr/10.1177/1096348006287163>
- [43]H. K. Shin, “Research on Sustainable Tourism through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Eco-Tourism Intention”, Docto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3.
- [44]B, H, Seong & S, D, Choi,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Tourism Behavior by Adopt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Structural Tourism Constraints and Social Class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8(2), 79-101, 2014.